

속초 보광사 소장 〈現王圖〉와 腹藏願文 검토*

김 미 경**

〈목 차〉

- I. 머리말
- II. <보광사 現王圖>의 도상과 특징
- III. <보광사 現王圖>의 腹藏願文과 제작자
- IV. 맺음말

국문요약

보광사는 속초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사찰로 1938년 창건되었다. 사찰의 연혁은 격변의 시기인 근대기 불교계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한다. 1930년대 금강산 안양암과 미타암의 주지였던 화담스님이 속초 영랑호 주변 불당골에 포교당으로 설립한 곳이 도심 속 보광사이다. 화담스님은 폭우로 유실된 안양암으로부터 지장보살상과 현왕도 및 신장도 등 불화 2점을 이운하여 보광사에 모셨다.

본 논문은 1930년대 금강산 안양암으로부터 이운해 온 것으로 전하는 1865년 제작된 〈현왕도〉를 중심으로 도상 형식과 특징을 살펴보고, 복장원문을 통하여 원 봉안처와 제작자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보광사 소장의 〈현왕도〉는 8폭의 병풍을 배경으로 양손에 홀을 잡고 정면향으로 앉은 모습의 현왕을 중심으로 권속들을 배치한 형태이다. 지물을 손에 든 천동천녀 및 판관들로 구성된 주변 권속들은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 형식이다. 이같은 형식의 현왕도는 18세기 전반 이른 시기 제작된 고식 계열 현왕도의 구성이나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정면향이나 권속들의 자세와 좌우 배치, 손에 든 지물, 병풍 표현 등에서 동일 초본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으로 예산 〈보덕사 현왕도〉(1865)가 있다. 아울러 동일 화승인 法仁의 참여 사실과 함께 새로운 화승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보광

* 이 논문은 2017년 10월 14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주최로 열린 속초 영랑호 보광사의 문화유산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사 현왕도>는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보광사(普光寺), 현왕도(現王圖), 화엄사(禾嚴寺), 복장원문(腹藏願文), 송암대원(松岩大遠), 법인(法仁), 원명공우(圓明亘祐)

I. 머리말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영랑호의 푸른 송림으로 우거진 조그마한 골짜기에 위치한 보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末寺이다. 속초시는 강원도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개화기부터 근대화 도입의 입구로, 원산항과 왕래가 잦은 큰 항구로서 강원도 북부지역의 교육문화 및 상업중심지로 발전하였다. 보광사는 1938년 鄭華潭 스님이 세운 근대기 사찰이며 그 뿌리는 金剛山 安養庵이다. 화담스님은 1930년 안양암이 폭우로 유실되자 사재를 모아 영랑호 불당골에 건봉사 속초포교당을 건립하였다.

건봉사 속초포교당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경매로 나오면서 화주 이순덕 보살이 구입하였고, 이후 보광사로 바뀌어 등록되었다. 종단에는 2008년에 편입되어 신흥사의 말사가 되었다. 현재 절에는 창건주인 화담스님이 안양암에서 이운해 온 17세기 조성된 목조지장보살좌상와 1865년의 <현왕도> 및 광서 연간(1875~1908) 조성된 <신장도>¹⁾ 각 1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보광사 현왕도>의 도상과 표현 등을 살펴 본 후, <현왕도>에서 발견된 腹藏願文에 주목하여 제작자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²⁾

II. <보광사 現王圖>의 도상과 특징

1. 도상

<보광사 현왕도>는 대웅전 오른쪽 靈壇 위에 목조 지장보살좌상과 그 뒷

1) 보광사 소장 <신장도> 도상은 사천왕이며, 하단 목서로 기입된 화기는 다음과 같다. 『幀面··/春潭··/比丘法··/上佐··/良工··/洪洵··/敬回/光緒/年··(辛)/六月/點眼』

2) 조선후기 조성된 <現王圖>에 대한 관련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장희정, 『조선후기 現王圖의 유행과 慶國寺 現王圖』, 『불교미술』18(동국대학교박물관, 2007), 103~105쪽; 김윤희, 『조선후기 명계 불화 현왕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12); 정명희, 『봉안 공간과 의례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현왕도 연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성불사 현왕도>를 중심으로』, 『미술자료』78(국립중앙박물관, 2009), 96~123쪽; 박은경, 『부산 마하사 대웅전 현왕도』, 『마하사 현왕도 보수 보존』(금강문화재단, 2013), 84~94쪽; 윤선우, 『1898년 파주 普光寺<現王圖 草本>의 도상과 목서』, 『불교미술』28(동국대학교박물관, 2017); 박재선, 『조선후기 현왕도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그림 1. 보광사 전경,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벽에 〈현왕도〉를 봉안하였다. 규모는 세로 130.5cm, 가로 104.3cm 크기의 패널 형태로 먼 바탕에 채색을 베풀었다. 바탕 면은 좌우로 두 폭을 연결하여 하나의 화폭을 형성하였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하단부에 촛농에 의한 약간의 오염과 좌보처대왕의 청색포 일부에 안료의 박락 및 변색이 진행되었을 뿐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화면 중앙에는 여덟 폭의 병풍을 배설하고 그 전면의 의자에 앉은 현왕과 그를 보좌하는 인물로 총 7위의 권속들을 구성하였다. 중앙 정면을 향해 앉은 現王은 소매가 긴 적색의 袍를 입고, 양손은 가슴 앞쪽으로 모아 홀을 쥐고 있으며, 머리에는 經冊이 놓인 원유관 형식의 三山冠을 쓰고 있는데, 관 위에는 경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었다. 관 위의 經冊은 佷拉王 도상에서 볼 수 있듯이 『金剛經』 혹은 日月冠을 쓰고 있다. 『금강경』은 영험력이 강한 死後功德經으로서 조선 후기에는 喪葬禮 때 쓰인 讀誦經典으로 사후신앙과 밀접히 관련된다.

화면 상단 좌우에는 각각 사각의 魚皮印櫃와 장생불사의 영약인 天桃를 손에 받쳐 든 天童과 天女가 배치되었다. 아래는 인간의 生死를 다스리는 名簿나 두루마리를 안고 있거나, 笏을 받쳐 든 인물이 있다. 이들은 명부와 두루마리를 펼쳐 읽거나 들고 있으며, 현왕상 전면의 탁자 앞에도 무릎을 꿇은 채 두루마리를 上奏하는 判官이 있다. 탁자 앞뒤 제왕의 관을 쓴 두 인물은 현왕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좌우보처의 인물인 大輪聖王과 轉輪聖王이다. 의식집의 『現王請』

에서 반드시 수록되는 奉請 대상이다.³⁾ 그리고 머리에 검은 幘頭를 쓴 하급관리의 모습인 判官은 현왕의 좌우보처를 보조하는 인물로서 童子 등과 명부계 <十王圖>에 등장하는 도상 및 인물과 차이 없이 동일하게 그려졌다. 이들 권속들은 모두 화면 중앙의 정면향을 취한 현왕에게 향하도록 인물 간의 동적인 시선과 배치를 유도하고 있다.



그림 2. 『금강경』 얹은 관을 쓴 염라대왕상과 현왕의 보관 위 경책

한편 <보광사 현왕도>와 도상 구성, 인물 표현 등 양식적으로 거의 흡사한 다른 한 점의 불화가 확인되었다. 바로 예산 <보덕사 현왕도>이다.⁴⁾ 전체적인 화면의 도상 구성이나 배치, 뒷면에 배설된 8폭 병풍과 정면향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현왕을 부각한 점, 권속들의 동세와 표현 등에서 모두 일치한다. 다만 현왕의 얼굴 표현에서 음영의 강약 차이와 맨 뒷열에 배치된 천동천녀의 두 손에 든 持物, 판관 등 권속들의 복식 색상에서 다소 변화를 주어 차이날 뿐으로, 화승 간의 동일 초본에 의한 참여를 짐작케 하는 작품이다. 제작 시기는 1865년이다.

3) 안진호 편찬의 『釋門儀範』 現王壇면에는, “至心歸命禮 冥間會主 普賢王如來佛 至心歸命禮 左右補處大輪聖王轉輪聖王 至心歸命禮 判官錄事諸位使者各眷屬 世尊此日記閻羅 不久當來證佛陀 莊嚴寶國常清淨 菩薩修行衆甚多 故我一心歸命頂禮”라고 하여 現王에 대한 禮敬이 수록되어 있다.

4) 『한국의 불화, (27)수덕사 본말사편』(성보문화재연구원, 2002), 157쪽. 圖44 참고.



드림 3. 속초 보광사 소장 <현왕도>와 예산 보덕사 <현왕도> 비교



그림 4. 보광사 현왕도의 현왕 상호와 판관 법의에 시문된 음자문

현왕의 육신부는 백색 바탕에 황갈색으로 윤곽선에 음영을 주고, 눈썹과 수염 등은 먹선으로 모근을 표현하였다. 양쪽 눈의 눈꺼풀과 안와선은 황갈색으로 표현하였으며, 홍채는 진고동색을 바르고 동공과 윤곽선은 군청선으로 마무리하였다. 주변의 좌우보처와 판관도 거의 동일한 기법이나, 판관상의 육신부에 백색을 더 강조하였다. 현왕의 착의는 적색 바탕에 목둘레와 양쪽 팔끝의 가장자리

부분은 장식 문양으로 처리하였고, 양쪽 어깨와 가슴아래 흉배는 약식화된 흰 구름문을 흘뜨려 묘사하였다. 현왕 앞면에는 책상이 놓여 있는데 상면은 황색바탕에 담묵으로 나무의 목리무늬 결을 표현하였다. 배면에는 제왕의 공간에 설치하는 여덟 폭짜리 병풍을 배설하였으며, 각 폭은 수목이나 산수, 인물 묘사 없이 순백색의 여백으로 처리하였다. 칩병 형식의 8폭병풍의 뒷면은 모두 감청색으로 둘러 장황하였다. 현왕이 앉아 있는 의자는 주존상을 크게 강조하면서도 의자 형태는 드러나지 않는다. 앞면의 탁자도 권속들에 가려져 일부만 확인된다. 화면 하단의 지면은 담녹색으로 처리하였고, 화면 가장자리와 상하단 테두리는 백색으로 둘러쌌다.

전체적으로 채색은 주색과 청색, 녹색이 주조색이고, 백색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외에 현왕과 천녀, 좌우협시의 관모 및 인괘 등에 금박이 사용되었다. 착의 문양은 상단 천녀의 군청장삼과 그 아래 우협시 대왕의 녹색착의에 국화문을, 화면 하단 전면에 배치된 두 판관의 적색착의 및 8곡병풍의 감지장황 길면 바탕 등에는 국화문과 보상화문으로 각각 표현하였다. 문양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화면 향우측의 두루마리 묶음을 팔에 들고 서 있는 판관의 적색착의인데 백색 ‘옴’자문의 범자를 반복하여 시문한 점이 흥미롭다.(그림 4 참조)

2. 특징

<현왕도>는 다른 불화에 비해 비교적 소폭의 화면에 그린 불화이다. 조선 후기 성행한 ‘現王齋’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지옥의 다섯 번째 왕인 염라대왕을 그린 것이다. 주로 사찰의 중심 전각에 봉안한다. 현왕제는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설행되는 의식으로, 현왕이 3년에 걸쳐 진행되는 10번의 심판 없이 망자가 바로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왕제에 대한 기록은, 『勸供諸般文』(1574년)과 『諸般文』(1624년)에 수록되던 『聖王請』과 19세기의 『要集』, 『請文要集』, 『釋門儀範』의 『現王請』 항목에 수록되었다. 이 항목은 現王壇에 대한 禮敬 절차를 수록한 의식문으로 대웅전의 現王壇에서 예불을 올릴 때 사용하며, 조선 후기 불보살을 비롯해 불교 의식에서 봉청하는 여러 존상에 대한 권공의식들이 청문 형태로 유행하였다.⁵⁾

현존하는 현왕도 가운데 가장 이른 사례는 1718년 <기림사 현왕도>이다. 이후 1944년까지 남아 있는 작품은 약 100여 점이 확인된다.⁶⁾ 제작 시기별로는

5) 정명희, 앞의 글(2009), 101쪽.

6) 김윤희, 앞 논문(2007), 2쪽; 고경스님(교감), 송천스님·이중수·허상호·김정민(편저), 『한국 의 불화 화기집』(성보문화재단연구원, 2011) 참조.

대략 18세기 13점, 19세기 55점, 20세기 전반 35점 등 19세기 이후 더욱 성행하였다. 조선후기 현왕도는 대체로 병풍을 배경으로 의자에 앉은 반측면향에 재판을 관장하는 장면으로 도상화되는 반면, <보광사 현왕도>는 正面向을 보인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특히 정면향의 현왕 도상은 주로 이른 시기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면향을 취한 <현왕도>는 크게 의좌상과 입상, 병풍의 유무와 도상 특징에 따라 의좌상은 A그룹, 입상을 B그룹으로, 또 의좌상에 책상이 놓인 구성은 A-1그룹 등 몇 가지 그룹으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그룹의 가장 이른 사례로는 기림사 현왕도(1718)가 있다. 이 작품에서 표현된 배경의 병풍, 원류관에 제왕의 옷을 착용하고 홀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정면향의 모습은 조선후기 오방제위도(五方帝位圖)의 도상과 일치한다. 또한 18세기의 흥국사 현왕도(1741)와 삼장사 현왕도(18세기) 등은 동 시기의 제석천도(帝釋天圖)와 도상적 연관성이 높은 것 같다. 병풍이 놓인 배경과 의자에 앉은 현왕, 그 주변 인물의 구도 등에서 각각 1705년, 1728년 제작된 동화사 제석천도와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8세기 조성된 현왕도는 전반적으로 도상이 정형화되지 않았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머리에 원유관 혹은 日月冠을 쓰고, 홀을 든 합장한 손 표현이 많다. 염라왕이 쓰고 있는 관모 위의 『금강경』은 1798년 제작된 통도사 현왕도에, 帝王의 모습인 대륜성왕과 전륜성왕의 도상은 1788년 남장사 현왕도에서 나타난다. 19세기에는 이미 정착된 측면향의 역동적인 자세나 경책을 묶은 원유관, 손에 잡고 있는 홀 외에 부채나 수염을 쓰다듬고 있는 보다 동세가 느껴지는 모습의 현왕 도상은 18세기 후반경에 정착되는 듯하다.

둘째, A-1그룹은 A그룹에 책상이 놓인 유형으로, 1788년 남장사와 1792년 마하사 현왕도에서 나타난다. 특히 남장사 현왕도는 손에 든 부채나 책상 위에 향로가 놓여진 구성 등 기물이 다양해지는 점에서 앞선 현왕도들과 구분된다. 이후 19세기의 칠장사(1847), 보광사(1863), 흥천사(1867) 현왕도의 사례는 현왕을 보필하는 좌우시립상의 등장이나 관모 위에 경책을 엮고 있는 현왕의 형상이 보편화되었고, 현왕 주위 인물들은 보다 역동적인 자세로 묘사되고 있다.

셋째, B그룹은 입상 형식의 도상으로,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현왕도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현왕도 가운데 사례가 드문 유일한 입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은 채운만 가득한 여백으로 처리하여 인물들을 강조하였다. 현왕은 백색수염에 일월관을 쓴 모습으로 권속들을 대동하여 현실 공간에 강림한 듯한 인상적인 장면이며 의식용 불화의 면모를 띤다. 특히 일월관을 쓰고 풍성하게 표현된 백색수염이나 근엄한 제왕의 모습 등은 1741년의 흥국사본 현왕과 닮아 있다.

A그룹 기림사 현왕도(1718)	A-1그룹 남장사(1788), 마하사(1792)	B그룹 기메박물관소장, 현왕도 (1756)
		

그림 5. 조선후기 정면향을 취한 현왕도 그룹

		
개심사 오방제위도(1676)	동화사 제석천도(1705)	동화사 제석천도(1728)

그림 6. 조선후기 <五方帝位圖>와 <帝釋天圖> 도상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 18세기 이후 정착된 현왕도 가운데 정면향 도상의 현왕도를 중심으로 도상 특징에 따라 몇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 결과 18세기 초반에는 <오방오제위도> 나 <제석천도> 와 같은 천부 도상에서 차용된 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 점차 시왕도의 도상을 공유하며 확립되었다. 18세기는 정면향에 의좌상과 입상 형식이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19세기 이후에는 측면향에 의좌상으로 확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보광사 현왕도>는 조선후기 현왕도 중 이른 시기인 기림사 현왕도(1718)나 남장사 현왕도(1788), 마하사 현왕도(1792) 등 고식 계열의 도상 구성과 형식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면향과 권속들의 자세, 좌우 배치, 손에 든 지물, 병풍 표현 등에서 동일 초본을 공유한 도상으로 추정되는 예산 <보덕사 현왕도>(1865)는 적어도 동일 계보의 화승 그룹에 의하여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하였다.

표 1. 18~19세기 정면향 그룹별 현왕도

유형	명칭	제작 연도	재질	크기	화승	봉안/소장처
A그룹	현왕도	1718년	견본채색	111.7×89.5	畫員 知淳	경주 기림사
	현왕도	1741년	견본채색	125.5×109.0	金魚 負木元卞 且□ 來往就峯 竹壽 特察	여천 홍국사 대법당/ 동국대학교박물관
	현왕도	1799년	견본채색	105.0×70.0	畫員 巨鵬 等學	진주 지리사 삼장사/ 국립중앙박물관
	현왕도	1730년	마본채색	53.0×47.5	金魚 巨陟	순천 선암사 칠전
	현왕도	1825년	견본채색	89.5×68.0	良工 退雲堂慎謙 鶴松堂禪俊 德宗 德宗 修演 定淳 定仁 弼禾 寶英 有定 定奎 性桓	군위 지보사/ 은혜사 성보박물관
	현왕도	1854년	견본채색	139.0×102.5	畫師 益讚, 幸和, 敬郁, 奉恩	해남 대흥사 대광명전/호림박물관
	현왕도	1899년	면본채색	147.5×121.8	畫員 金龍順	남원 선원사 성왕단/ 선원사 약사전
A-1 그룹	현왕도	1792년	견본채색	83.0×81.5	良工 萬謙 極惠 普仁	부산 마하사 대웅전
	현왕도	1847년	견본채색	99.0×72.5	-	안성 칠장사
	현왕도	1863년	견본채색	130.5×104.3	畫師 松岩大遠, 法仁, 三如 金魚 圓明巨祐	금강산 화엄사/ 속초 보광사
	현왕도	1865년	견본채색	125.0×97.0	-	예산 보덕사
	현왕도	1867년	견본채색	131.7×111.0	-	남양주 흥전사
	현왕도	1881년	면본채색	156.7×105.5	金魚 龍潭雨珍	인천 강화 청련사/ 인천 전등사
	현왕도	1788년	견본채색	100.5×73.5	良工 錦珣(淳)	상주 남장사 대법당
현왕도	1897년	면본채색	92.0×75.0	金魚 蓮湖奉宜 蓮波華印 太日 敬秀	남해 용문사	
B그룹	현왕도	1756년	견본채색	76.0×67.5	畫師 聚□	프랑스 기메박물관

Ⅲ. <보광사 현왕도>의 腹藏願文과 제작자

1. <현왕도>의 복장원문을 통해 본 조성 배경

보광사 소장 현왕도는 화면 하단에 畫記欄이 없어 그동안 조성 연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13년 8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에서 실시한 정밀 조사를 통하여 현왕도 배면에서 복장물을 발견하였다.⁷⁾ 腹藏物은 후령통과 발원문, 다

7) 『한국의 사찰문화재:전국』, 문화재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강원 최고 현왕도 속초 보광사서 발견』, 강원도민일보[2013년 9월 3일] 참고.

라니로 구성되어 있고 願文을 통해 현왕도의 조성 연대가 1863년이라고 밝혀졌다. 복장원문은 韓紙 위에 붉은 글씨로 적었으며, 내용은 1863년 금강산 華嚴寺의 水月道場 佛事 때 조성된 <지장시왕도> 화기의 기록과 매우 유사하여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⁸⁾

현왕도의 원문은 황초복자 안에 후령통과 함께 발견되었다. 후령통은 일체 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一切如來全身舍利寶匣眞言), 열금강지방지도(列金剛地方之圖), 준제구자천원지도(准提九字天圓之圖), 팔엽대홍련지도(八葉大紅蓮之圖) 등에 감싸여 있었다. 복장원문은 세로 18.1cm, 가로 29.6cm 한지에 붉은 글자로 조성시기, 불사 관련 인원을 기록하였다. 첫 머리는 '願以此功德...'으로 시작하는 功德偈와 "崇禎紀元後四年癸亥端陽後五日", 즉 1863년 5월 단오에 불화를 조성했다는 기록으로 시작한다. 불화의 조성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보광사 창건 당시 화담스님이 폭우로 유실된 금강산 안양암에서 <현왕도>를 이운해 왔다는 사찰측의 전언을 통해 봉안 사찰에 대한 정보가 참고되었다. 이어서 證明, 誦呪 化主, 別座, 都監, 飯頭, 熟頭, 畫師, 金魚 등 불사에 참여한 승려들을 기록하였다. 이중 제작자인 화승은 畫師와 金魚로 구분하면서 금어를 한 자 들어 쓴 것으로 보아 총 지휘를 한 인물은 첫 줄에 기록된 화사 松岩大遠이고 이어 法仁, 三如을 적었으며, 금어는 圓明巨祐로 모두 4명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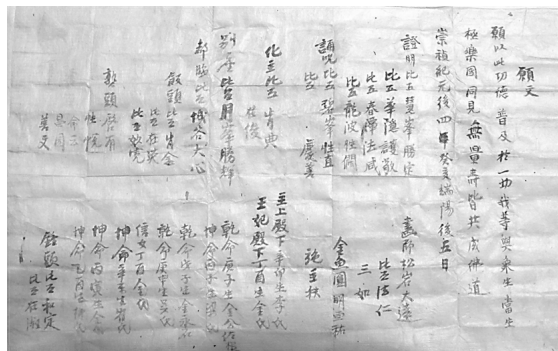


그림 7. 願文, 한지주서, 18.1×29.6cm, 1863년, 속초 보광사 소장

8) 현재 보광사는 행정구역상 속초시 동명동(도로명: 영랑호반길)에 위치하고, 금강산 화엄사華嚴寺는 고성군 토성면 설악산에 위치한 화암사禾岩寺의 옛 명칭이다. 신라 혜공왕 때 진표율사가 華嚴寺라는 이름으로 세운 절이다. 1912년에 건봉사의 말사로 부속되면서 禾岩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화암사가 오늘날 고성군에 편입되기까지, 조선 후기에는 간성군杆城郡이었고,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양양군襄陽郡으로 편입되었으며 1963년에 고성군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속초시와 고성군은 인접한 지역으로 거리상으로도 그리 멀지 않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heritage.go.kr

A. 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

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崇禎紀元後四年癸亥端陽後五日

證明比丘慧峯勝定

畫師松岩大遠

比丘華隱護敬

比丘法仁

比丘春潭法咸

三如

比丘龍波性(イ+閑)

金魚圓明亘祐

誦呪比丘碧峯性直

施主秩

比丘慶善

主上殿下辛卯生李氏

化主比丘肯典

王妃殿下丁酉生金氏

在俊

乾命庚子生金公佑根

別座比丘月峯勝輝

坤命丙子生梁氏

都監比丘 城谷大心

坤命戊子生金永石

飯頭比丘肯念

乾命庚申生吳氏

比丘在英

信女丁酉金氏

比丘歛虎

坤命辛亥生崔氏

熟頭啓有

坤命丙寅生金氏

性悅

坤命乙酉生柳氏

命云

鍾頭比丘和定

昌口

比丘在淑

善文

B. 해석문

원컨대 이 모든 공덕 중생들께 회향하니 저희들과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여 무량수불 친견하고 함께 성불하여지다.

승정기원후사 계해년 단양⁹⁾후 오일

증명 비구혜봉승정

화사 송암대원

비구화은호경

비구법인

비구춘담법함

삼여

⁹⁾ 端陽은 음력 5월 5일을 수리, 端陽, 端午, 重五, 天中節, 天中佳節이라고도 부른다.

비구용과성한	금어 원명공우
송주 비구벽봉성직	
비구경선	시주질
화주 비구궁전	주상전하신묘생이씨 ¹⁰⁾
재준	왕비전하정유생김씨 ¹¹⁾
별좌 비구월봉승휘	건명경자생김공우근
도감 비구성곡대심	곤명병자생양씨
반두 비구궁념	곤명무자생김영석
비구재영	건명경신생오씨
비구구호	신녀정유김씨
속두 계유	곤명신해생최씨
성열	곤명병인생김씨
명운	곤명을유생류씨
창국	종두 비구화정
신문	비구재숙

복장물은 배면 중앙부의 十字나무 틀에 종이로 싸여 납입되었다. 근봉지로 쓴 황초복자 안에는 후령통, 원문, 朱書로 기입된 梵書 다라니로 구성되었는데, 방형 후령통은 一切如來全身舍利寶匣眞言, 列金剛地方之圖, 准提九字天圓之圖, 八葉大紅蓮之圖 등에 감싸여 五色絲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주서 다라니가 쓰인 근봉지에는 “證明僧性 謹封”라고 목서로 기입하였다. 불화의 복장물은 그림틀 형식일 경우 배면에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족자형식에서는 불화 전면의 상축 좌우로 2~3개의 복장주머니를 걸고, 『造像經』에 의거하여 내부 품목과 의식 과정을 진행한다.¹²⁾

10) ‘주상전하 신묘생 이씨’는 哲宗이다. 휘는 昇, 자는 道升으로 1831년 6월 출생하여 1863년 12월 승하하였다. 조선 제25대 임금으로 1849년에 즉위하였다.

11) ‘왕비전하 정유생 김씨’는 철종의 비인 哲仁王后(1837-1878)이다. 그는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로 태어나, 1851년 15세 나이로 왕비가 되었다. 1863년 철종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즉자 대왕대비가 되어 1878년 5월 12일 창경궁 양화당에서 4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12) 조선시대 간행된 목판본 『造像經』은 1575년 龍泉寺版, 1677년 楞伽寺版, 1720년 華藏寺版, 1746년 金龍寺版, 1824년 楡岾寺版 등이 간행되었다. 洪潤植, 『佛像 佛畫에 있어 腹藏物의 意味』, 『文化財』19, 1986 참조; 불교무형문화유산 학술보고서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불교문화재단연구소, 2014)



그림 8. <보광사 현왕도>의 복장품 중 황초복자와 후령통, 범서 다리니

<보광사 현왕도> 복장원문의 내용을 살펴 보면, 여기에 수록된 인물들과, 1863년 음력 5월 6일 강원도의 고성 화엄사 水月道場佛事¹³⁾ 때 조성된 <지장시왕도> 화기에 언급된 인물들과 대부분이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현왕도 복장원문의 첫 구절에는, ‘원컨대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께 회향하오니 저희들과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무량수를 친견하고 함께 성불하여지이다’라는¹⁴⁾ 공덕계 발원문을 적었고, 곧이어 불화의 조성 연대를 기재하였다. ‘승정기원후사계해 단양후오일崇禎紀元後四癸亥端陽後五日’ 즉, 승정기원후 네 번째 맞는 계해년은 1863년이며, 端陽은 음력 5월 5일 단오를 의미한다. 즉 단오 5일날 봉안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화엄사 <지장시왕도>에 기입된 동치 2년(1863) 5월 6일의 점안 시기와 근접한다. 연화질 열목에는 ‘證明 華隱護敬과 龍波性憫, 誦呪 碧峯性直, 金魚 松岩堂大遠 比丘法仁 比丘三如 등 동참 화사를 밝히고 있다. 化主로는 比丘肯典, 在俊 등으로 연화질과 화승들이 모두 동일 인물들로 일치한다. 시주질의 春潭堂法咸 역시 보광사 현왕도의 인물과 동일인으로 引勸比丘尼 2인과 일반 시주자 인원만 다를 뿐 동시에 함께 제작된 불화임을 알 수 있다. 발원문은 화기 말미에 기입하였는데, ‘뛰어난 공덕으로써 살아 생전에는 수복하고 사후 정도에 왕생하여 법계 사령들께 두루 미쳐 모두 함께 피안에 들게 하여지이다’라고 하여 당시 진행된 수월도량 불사가 동참자들의 生前預修齋로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조선말기 불교 교단에서 萬日念佛會와 함께 성행했던 水月道藏空花佛事가 지장시왕도의 점안 법회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명종 때 普雨가 도량의식의 觀法에 대하여 문답 형식으로 서술한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間答』(1642년, 1권)이 불공 의식과 관계된 내용의 글들을 실고 있어 참조된다.

14)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전국편)』, 문화재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204쪽 참조.

표 2. 고성 화엄사 <지장시왕도> 화기와 보광사 소장 <현왕도>의 복장원문¹⁵⁾ 비교

화암사 <지장시왕도>, 1863	보광사 <현왕도 원문>, 1863
<p>【書記】 同治二年五月初六日十王 幀點眼奉安于金剛山 華嚴寺水月道場 緣化所 證明 華隱堂護敬 龍波堂性僞 誦呪 碧峯堂性直 金魚 松岩堂大遠 比丘 法仁 比丘 三如 化主比丘 肯典 在俊 別座比丘 月峯堂勝輝 都監比丘 自座大心 鍾頭比丘 和定 比丘 在淑 供養主比丘肯念 比丘妙寬 比丘在英 熟頭 比丘戒宥 比丘昌元 比丘命云 比丘善文 茶面 比丘奉惠 淨桶 朴宗元 負木 李福漢 施主秩 坤命壬寅生趙氏 坤命丁□生柳氏保體 信女癸亥生黃氏 坤命甲申生方氏 比丘春潭堂法咸 引勸比丘尼尙曄 比丘尼有頤 以此勝緣功德生前壽 福死後往生淨界普 與法界蠢動舍靈 同 登彼岸</p>	<p>【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崇禎紀元後四癸亥端陽後五日 證明比丘 慧峯勝定 書師 松岩大遠 比丘 華隱護敬 比丘 法仁 比丘 春潭法咸 三如 比丘 龍波性僞 金魚 圓明巨祐 誦呪比丘 碧峯性直 施主秩 比丘 慶善 主上殿下辛卯生李氏 化主比丘 肯典 王妃殿下丁酉生金氏 在俊 乾命庚子生金公佐根 別座比丘 月峯勝輝 坤命丙子生梁氏 都監比丘 城谷大心 乾命戊子生金永石 飯頭比丘 肯念 乾命庚申生吳氏 比丘 在英 信女丁酉金氏 比丘 妙寬 坤命辛未生崔氏 熟頭 啓有 坤命丙寅生金氏 性悅 坤命乙酉生柳氏 命云 鍾頭比丘 和定 昌圓 比丘 在淑 善文</p>

강원도 고성 화엄사는 1912년에 절 이름을 禾岩寺로 개칭하며 건봉사의 말사로 속하였다. 보광사의 창건주인 鄭華潭 스님은 일제강점기 당시인 1913년 9월에 금강산 화엄사와 산내암자로 추정되는 안양암과 미타암의 주지를 동시에 겸하였다. 이후 안양암이 폭우로 유실되면서 1934년 6월 화암사 주지 사직을, 1937년 4월에는 미타암과 안양암 주지 소임도 사직하였다. 그리고 1938년에 私

15) 1863년 화엄사 <지장시왕도>의 화기 原文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최선일 박사가 제공하였다.

財를 털어, 속초 영랑호 불당골 옆에 건봉사의 속초포교당을 건립하였다.¹⁶⁾ 화담 스님은 보광사를 창건하면서 화엄사의 산내암자인 안양암으로부터 <지장보살상>¹⁷⁾과 <현왕도>를 옮겨와 봉안한 것으로 전해온다. 이러한 정황의 근거로 <현왕도>의 복장원문과 화엄사에 남아 있는 <지장시왕도> 화기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연화질에 열거된 인물과 화승 모두 동일한 인물들로 일치하였다. 아울러 두 불화는 1863년 화엄사에서 생전예수재로 설계된 수월도량 불사 때 동시 제작된 것임도 확인되었다. 이 중 <지장시왕도>는 본사인 화엄사에, 안양암에 봉안되어 있던 <현왕도>와 <신장도> 각 1점이 함께 보광사로 이안되어 왔다는 전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였다.

복장원문을 통해 살펴 보았듯이 보광사에 이안된 <현왕도>는, 일제강점기 금강산 화엄사(현 화암사)와 안양암 및 미타암 주지였던 정화담 스님이 1938년 속초 불당골에 건봉사 속초포교당으로 건립하였고, 당시 大房 형식의 법당 봉안용으로 금강산 안양암의 목조 지장보살좌상과 현왕도를 이운해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주존불상으로 이운한 지장보살좌상과 현왕도는 모두 명부계 주존이며 해당 불화이다. 이때 보광사가 위치한 동명동은 영랑동과 함께 속초의 중심지로서, 면 소재지는 1937년 5월에 대포리에서 영랑동과 동명동이 속한 속초리로 옮겨지고,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던 때이다.¹⁸⁾ 바로 옆은 영랑호이고 어업이 중요한 산업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는 속초항이 인접해 있는 변화한 곳이었다. 이곳에 정화담 스님은 사재를 털어 포교당을 건립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민의 생계와 해상 사고, 일제치하의 억압된 사회 환경 속에 그들의 마음을 위무하고 망자의 천도를 위하여, 명부 주존인 지장보살을 비롯하여 사후 3일 만에 성왕재를 통해 망자의 영혼을 구제한다는 현왕도는 당시 민들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신앙이었을 것이다.

2. 제작자 검토

보광사 <현왕도>의 복장원문과 화엄사 <지장시왕도>의 화기 내용에 의하면, 두 불화를 제작한 화승은 松岩堂 大遠, 法仁, 三如와 圓明巨祐 등 모두 4인이다. 이 가운데 불화 제작을 주도한 우두머리 화승은 송암당 대원이다. 대원은 현존 작품을 통해 활동 기간은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이고, 관여한 불화는

16) 『조선총독부관보』 제3680호 참조.

17) 최선일,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彫刻僧 草安』,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제5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77~102쪽 참고.

18) 『속초시사』 중 지명유래

현재까지 4점의 불화와 불상 개금이 확인된다. 1844년에 서울 봉은사 명부전 현왕도는 수화승으로 주도하였고, 같은해 인원체정과는 봉은사 대웅전의 신중도를 함께 조성하였다. 이어 1856년에도 수화승 인원체정과 서울 도선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개금하였다, 1863년에는 고성 화암사 수월도량 불사 때 수화승으로 지장시왕도와 현왕도를 동시에 조성하였다. 대원이 함께 작업한 수화승 체정體定은 19세기 경기지역에서 활동한 화승으로, 1844년 봉은사 현왕도에는 증사로, 대웅전 신중도는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경기지역 최고의 문중이었던 華嶽堂 知濯大師(1750~1839)의 문집인 『삼봉집 三峰集』(1869, 문손門孫 혜소慧昭가 편집해 양주揚州 천마산天摩山 보광사寶光社 印刊本) 중 ‘華嶽門衆 門徒秩’에 화악대사의 법제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표적인 선제자로 松巖堂 大遠과 月霞堂 世元이 꼽힌다. 이들은 함께 봉은사 대웅전 <신중도>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삼각산에 오래 머물렀다 하여 ‘三峰’이라고도 불리우는 18세기 불교계의 대표적 고승 화악당 지탁은, 金剛山과 寶蓋山에 오래 머물렀으며, 『수능엄경』을 만 번 읽고 도를 깨쳤다고 하는 인물이다. 그의 진영에 ‘華嚴宗主’라는 칭호대로 화엄학의 대가로 이름을 떨쳤다. 김룡사 대성암에는 진영과 추사 김정희가 지은 <화악대사영찬> 현판이 전해온다. 이와 같이 대원은 당대 화엄학의 최고봉이었던 화악 지탁의 제자로 체정과 세원 등과 활동하였다. 수화승 대원의 작화 활동은 1844년~1863년 사이 20년간 4점의 불화와 불상 개금에만 관여하였고 그 이상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대원은 1844년경에 스승격인 수화승 체정과 함께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이후 금강산권역에서 작화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록된 法仁은 法印, 法忍으로도 적었는데,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활동한 화승이다. <보광사 현왕도>와 도상적으로 같은 <보덕사 현왕도>가 있다. 보덕사 소장 현왕도에는 화기가 없지만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장시왕도>의 화기를 통해 제작자 정보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보덕사에 남아 있는 다섯 점의 불화는 모두 충청도 덕산군 가야산 보덕사에서 조성되었다. 불화를 그린 금어는 敬焄影波, 法仁石月, 學能 등 3명이고 이 가운데 法仁의 참여가 주목된다. 화기에 따르면 당시 보덕사 불사에는 흥선대원군 이씨와 여흥부대부인 민씨 부부가 시주자로 기재되어 왕실발원 불화라는 새로운 사실도 알 수 있다.¹⁹⁾ 특히 금어로 두 번째 기재된 法仁石月이 주목된다. 법인은 1863년

19) <보덕사 지장도>(1865) 화기는 다음과 같다. 『忠淸右道德山郡地伽倻山報』德寺佛像與各幀畫成□, 建大施主京畿京城內□□, 居住, 興宣大院君庚辰生李氏, 驪興府大夫人戊寅生閔氏, 兩主保體, 化主比丘道文碧潭, 金魚比丘敬焄影波, 比丘法仁石月, 比丘學能, 都監比丘富益秋山, 比丘普

고성 화엄사 불사 때 지장시왕도와 현왕도를 그린 법인과 동일인으로써 보덕사 현왕도 제작에 법인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인의 다른 작화 활동은, 1854년 수화승 성천과 무염암 아미타후불도를 시작으로, 1855년 금암천여와 경남 남해 화방사 지장도, 1856년 선조암 산신도와 아미타후불홍도(순천 선암사 소장)를 그렸다. 또한 그는 수화승 인원체정과 서울 도선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개금하였고, 1860년 용완기연과는 고흥 능가사 수도암의 칠성도(순천 송광사 소장)를, 해운익찬과는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 삼세불도(약사불)와 하동 쌍계사 명부전의 지장도를, 1861년 수화승 월하당 세원과는 대전 비래사 비로자나불좌상을 개금하였다, 수화승 영담선종과는 밀양 표충사의 西來閣 아미타후불도를, 1863년에는 수화승 송암당 대원과 고성 화엄사 지장시왕도와 현왕도를 조성하였다, 2년 뒤에는 1865년 수화승 敬焄影波와 충청도 예산 보덕사의 아미타후불도·지장시왕도·현왕도·신중도·독성도를 조성하였다. 1887년에는 수화승 연하계창과 의정부 망월사의 괘불도와 수화승 혜산축연과는 서울 경국사 신중도(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를, 1891년 수화승 금호약효와는 전남 장흥 천관사 응진전 석가모니후불도(순천 송광사 소장), 1893년 보응문성과 대둔산 석천사 아미타극락회상도(경희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성하였다. 이같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법인은 조계산파인 금암천여, 해운익찬을 비롯하여 인원체정, 월하당 세원 및 금강산 화파인 혜산축연, 그리고 마곡사 화파인 금호약효나 보응문성 등과 폭넓게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⁰⁾

한편 금어로 기재된 圓明堂 巨祐는 19세기 후반경에 활동한 화승으로 현존 작품은 많지 않다. 고성 화엄사와 안양암과 미타암, 그리고 서울 관악산 화장사 등에 작품이 남아 있다. 1868년 화엄사의 안양암과 미타암 두 암자의 지장시왕도와 신중도, 칠성도 제작 때 수화승으로 주도하였고, 箕月肯攝 應憲 善根 就善 性典 祥玟 榕夏 등의 동참 화사들이 작업하였다. 1870년에는 화장사의 아미타불도 조성 당시 경은당 계운, 편수 연우당 선근, 경민, 경수, 수연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芸幻虛, 別座比丘益安, 同治四年乙丑七月日, 供養主比丘大訓, 比丘德律, 鍾頭比丘竺曠, 比丘天遊

20) 『韓國歷代書畫家事典(상, 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780~781쪽. 『韓國의 佛畫 畫記集』,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1388쪽. 『한국의 불화-수덕사 본말사편(27)』, 성보문화재연구원, 2002.

표 3. <지장시왕도>와 <현왕도>의 동참 화승과 주요 작품

화승	주요 작품
松巖堂 大園, 大遠 (1844~1863)	1844년 수회승으로 서울 봉은사 명부전 <현왕도> 조성 수회승 仁源體定, 편수 月霞堂世元和 봉은사 대웅전 <신중도> ²¹⁾ 조성 1856년 수회승 인원체정과 서울 도선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 개금 1863년 수회승으로 고성 禾巖寺 <지장시왕도>, <현왕도> 조성 金剛山 華嚴寺 水月道場 奉安, 金魚 松岩堂大遠 法仁 三如
法仁, 法印, 法忍 1854~1893	1854년 수회승 성천과 무염암 <아미타후불도> 조성 1855년 금암천여와 남해 화방사 <지장도> 조성 1856년 선조암 <산신도>, <아미타후불도>(순천 선암사 소장) 1860년 용환기연과 고흥 능가사 수도암 <칠성도>(순천 송광사 소장) 1860년 해운익찬과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도>와 쌍계사 명부전 <지장도> 조성 1861년 수회승 율하세원과 대전 비래사 비로자나불좌상 개금 1863년 수회승 송암대원과 고성 화엄사 <지장시왕도>, <현왕도> 조성 1865년 수회승 敬焘影波와 예산 보덕사<지장시왕도><아미타후불도> <신중도> <현왕도><독성도> 조성 1887년 수회승 연하계장과 의정부 망월사 <괘불도> 1887년 금호약효와 장흥 천관사 응진전 <석가모니불도>(순천 송광사 소장) 1893년 보응문성과 대둔산 석천사 <아미타극락회상도>(경희대박물관 소장)
三如	1863년 수회승 송암대원과 화엄사 <지장시왕도>, <현왕도> 조성
圓明堂 巨祐 (1863~1868)	1863년 수회승 송암대원과 고성 화엄사 <현왕도> 조성 1868년 수회승으로 고성 화엄사 안양암 <지장시왕도>, <신중도> 조성 ²²⁾ 수회승으로 화엄사 미타암 <칠성도> ²³⁾

이상과 같이 보광사 소장의 현왕도와 화엄사의 지장시왕도 조성에 참여한 화승들은 모두 19세기 중·후반기에 금강산과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당대 대표적인 승려 화사들임을 알 수 있다.

21) 金魚 仁源體定 退隱堂宥仁 松巖堂大園 片手月霞堂世元 道雲堂□□ 石庵堂□□ 漢雲堂法□
比丘成□ 比丘□□ 比丘□□ 比丘大□ 比丘性□(1844, 봉은사 대웅전 신중도 화기),
199.6×243.6cm

22) 참여 화승으로는 수회승에 金魚 圓明巨祐를 비롯하여 箕月肯攝 應憲 善根 就善 壯典 祥政
裕夏 등 8인이다.

23) <칠성도> 조성의 참여 화승은 金魚片手 圓明堂巨祐 普聞堂仁澤 蓮藕堂善根 就善 裕夏
妙慧 允參 水天 水正 등 모두 9인이다.

IV. 맺음말

현왕도는 망자를 위해 죽은 후 3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천도재의 하나인 현왕재에 근거하여 제작된 명부계 불화이다. 망자의 사후 3일에 어두운 명계에 빠진 혼을 구제하여 정토로 이끌어 주는 것이 현왕재의 주된 기능으로, 현왕도에는 시왕도에서처럼 지옥을 표현하는 대신 대륜성왕과 전륜성왕의 보필을 받는 보현왕여래를 도해하였다. 이 두 권속은 『要集文』, 『要集』, 『請文要集』 등에서 대륜성왕과 전륜성왕이 각각 좌보처와 우보처로 봉칭된다. 특히 조선시대 불교 상용의식 모음집인 『요집』 및 『제반문』(1624년)이나 『작법귀감』(1827년) 등 의식집의 聖王請이나 現王請 항목에서 現王齋를 확인할 수 있다. 현왕은 지옥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미래에 성불하여 얻게 되는 이름인 보현왕여래에서 유래한 점과 현왕청에서 봉칭되고 있음을 볼 때 조선후기 불교 의식으로서 명부시왕의 하나인 염라신앙에서 분화하여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왕도의 유존 작품으로는 조선후기인 18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조성 사례가 파악되는데, 현재까지 약 100여 점의 사례가 남아 전한다. 보광사 소장의 현왕도는 1863년에 조성된 화엄사 지장시왕도의 화기를 검토한 결과 수화승 송암대원과 동참화승 법인, 삼여 외에 원명공우 등 4인이 금강산 화엄사 수월도량 불사 때 동시에 제작하여 화엄사 혹은 안양암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원은 1844년경에 스승격인 수화승 체정과 함께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이후 금강산 권역인 화엄사에서 현왕도 제작에 수화승으로 주도하게 되었다.

보광사 현왕도는 8폭의 병풍을 배경으로 양손에 홀을 잡고 정면향으로 앉은 모습의 현왕을 중심으로 권속들을 배치한 형태이다. 지물을 손에 든 천동천녀 및 판관들로 구성된 주변 권속들은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 형식이다. 이같은 형식의 현왕도는 18세기 전반 이른 시기 제작된 고식 계열 현왕도의 도상 구성이나 형식을 답습하고 있다. 특히 정면향이나 권속들의 자세와 좌우 배치, 손에 든 지물, 병풍 표현 등에서 예산 <보덕사 현왕도>(1865)가 동일 초본을 공유한 작품임을 알았고, 아울러 동일 화승인 法仁의 참여 사실과 함께 새로운 화승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보광사 현왕도가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 2018년 7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30일 ▣

참고문헌

<도록>

- 『동화사 은혜사의 불교미술』, 『미술사학지』4, 한국고미술연구소, 2007
- 『영혼의 여정 : 조선시대 불교회화와의 만남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2003
- 『韓國歷代書畫家事典(상, 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韓國의 佛畫 畫記集』, 정보문화재연구원, 2011, 『한국의 불화-수덕사 본말사편 (27)』, 정보문화재연구원, 2002
- 『한국의 사찰문화재: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전국편)』, 문화재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 불교무형문화유산 학술보고서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논문>

- 김윤희, 『조선후기 명계 불화 현왕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12
- 박근남, 『조선후반기 제석천도 연구』, 『강좌미술사』39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2
- 박은경, 『부산 마하사 대응전 현왕도』, 『마하사 현왕도 보수 보존』, 금강문화재, 2013
- 박재선, 『조선후기 현왕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윤선우, 『1898년 파주 普光寺<現王圖 草本>의 도상과 목서』, 『불교미술』28, 동국대학교박물관, 2017
- 장희정, 『조선후기 現王圖의 유행과 慶國寺 現王圖』, 『불교미술』18, 동국대학교 박물관, 2007
- 정명희, 『봉안 공간과 의례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현왕도 연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성불사 현왕도>를 중심으로』, 『미술자료』78, 국립중앙박물관, 2009
- 최선일,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彫刻僧 草安』,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제 5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 최 엽, 『20세기 전반 불화의 새로운 동향과 화승의 입지-서울 안양암의 불화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66, 2010.6.
- _____, 『마곡사 화승 약효와 동시대 활동했던 화승들의 근대기 불화』,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 洪潤植, 『佛像 佛畫에 있어 腹藏物의 意味』, 『文化財』19, 1986

Abstract

Study of <Hyeonwangdo(現王圖)> and
<Bokjangwonmun(佛藏願文)> at Bogwangsa Temple in
Sokcho

Kim, Mi-Kyuong

Bogwangsa Temple is a temple located in the heart of Sokcho and was founded in 1938. The history of this temple represents the changes and flow of Buddhism in Korea in the modern times. In the 1930s, Priest Hwadam, who was the head of Mt. Geumgang's Anyangam Hermitage and Mitaam Hermitage founded it in Buldanggol near Yeongnangho Lake in Sokcho to spread the religious teachings. As Anyangam Hermitage was lost in a heavy rainfall, Priest Hwadam brought Jijangbosalsang and two Buddhist paintings -Hyeonwangdo and Sinjangdo and so on- to enshrine at Bogwangsa Temple.

This study discussed the images and characteristics of <Hyeonwangdo> which was created in 1865 and said to have been moved here from Mt. Geumgang's Anyangam Hermitage in the 1930s and examined the original place of enshrinement and creator through Bokjangwonmun. <Hyeonwangdo> in Bogwangsa Temple is a drawing of Hyeonwang who is seated in the middle holding a tablet in both hands in front of an eight-sided screen and his family is around him. His family, including Cheondongcheonnyeo and Pangwan holding symbolic objects, is arranged bilateral symmetrically.

The position and arrangement of the family and the objects and screen in <Hyeonwangdo of Bogwangsa Temple> are almost the same with <Hyeonwangdo of Bodeoksa Temple (1865)> in Yesan. Both pieces succeed the layout and style of the old-fashioned <Hyeonwangdo>

created in the early 18th Century and the same sketch was shared by Beobin, the Buddhist painter of <Hyeongwangdo of Bogwangsa Temple>, who also participated in creating <Hyeonwangdo of Bodeoksa Temple>.

In this respect, <Hyeonwangdo of Bogwangsa Temple> would be a meaningful resource for the discovery of a new artist called Beobin.

Key Words : Bogwangsa Temple(普光寺), Hyeonwangdo((現王圖),
Hwaeomsa Temple(禾巖寺), Bokjangwonmun(腹藏願文),
Songamdaewon(松岩大遠), Beobin(法仁),
Wonmyeonggeungwoo(圓明巨祐)

